

'98년 기업규모별 정보통신산업 현황

향후 세계 경제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이 중심이 된 정보 및 지식은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97년 WTO 통신협상 타결로 인한 정보통신산업의 자유화·개방화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집중적인 투자와 육성지원을 위한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개요

지난 1년은 외환위기에 따른 IMF 경제체제의 여파로 인해 국내시장 수요가 위축되고, 기업의 부도와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게 형성되는 등 경제위기가 전 산업 부문에 확산되면서 우리 경제가 많은 부분에서 여러 형태로 어려움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파급 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적이며, 벤처성격이 강한 정보통신산업을 중요한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꼽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 육성이 현 상황을 가장 효율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산업구조개선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본 내용은 지난 1년간 정보통신사업에 참여한 국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한 기업규모별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수립 및 경영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98년 정보통신산업 현황

지난 1년 동안 경기침체 속에서도 정보통신산업은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여 국내 GDP 비중이 '96년에 8.6%, '97년에 9.5%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액은 '97년 약 79조 7000억원에서 '98년은 환율증가로 수출 증가요인에 의해 전년대비 9.1% 증가한 89조 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99년에는 통신기기의 수출 증가와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한 10.7%의 명목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98년 수출은 305억 달러로 2.6% 감소했으며 수입은 20% 감소한 182억 달러로 나타나 122억 달러의 상품수지 흑자를 나타내 국내 전체 상품수지 411억 달러의 29.7%를 점유하고 있는 등 향후 외환위기 극복과 국제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산업 기업규모별 사업체 수

지난 '98년도에 정보통신 사업분야에서 매출액이 있는 사업체는 총 1만835개 업체로 조사되었다. 이는 '97년도의 9,883개 업체에 비해 9.6% 증가한

(표 1) 국내 정보통신산업 현황

구 분	'92	'93	'94	'95	'96	'97	'98
생산액(억원)	213,624	298,479	337,984	516,103	624,827	797,313	869,559
수출액(천\$)	12,276,572	14,382,801	20,226,506	31,737,870	29,585,262	31,249,980	30,524,759
수입액(천\$)	9,234,535	9,376,844	12,056,268	16,667,340	19,593,656	21,885,687	18,241,938

것이며, '92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 15.1%에 비해 다소 낮은 성장세를 보여 국내 경기 침체의 영향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사업체를 사업분야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와 소프트웨어 분야가 3,476개 업체, 2,124개 업체로 각각 32.1%, 19.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정보통신서비스업의 경우에는 700 서비스사업자가 많은 부가통신서비스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많은 방송서비스 분야에, 정보통신기기의 경우에는 부품, 그리고 소프트웨어업의 경우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분야에 많은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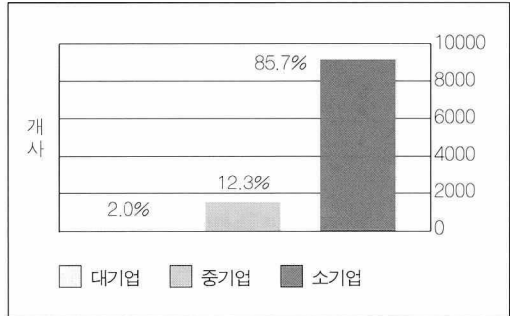
(표 2) 연도별 정보통신사업체 수 (단위:업체)

구 분	'92	'93	'94	'95	'96	'97	'98
정보통신서비스업	1,160	1,382	1,531	1,841	2,040	3,369	3,476
정보통신기기제조업	3,202	3,402	3,638	3,917	4,424	4,921	5,235
소프트웨어업	575	675	668	1,451	1,566	1,593	2,124
계	4,937	5,459	5,837	7,209	8,020	9,883	10,835

정보통신사업체를 기업규모별로 나누어 분석하면 대기업이 178개 업체로 2.0%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기업은 1,336개 업체로 12.3%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소기업의 경우는 9,171개 업체로 8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다수 사업자가 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대상 사업체 중에서 정보통신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매출액이 가장 많은 사업분야를 주력사업으로 업종을 단일화했지만 정보통신산업에서의 소기업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소기업 위주의 각종 기초, 기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단기의 정부 정책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그림 1) 기업 규모별 정보통신 사업체수



정보통신산업 기업규모별 생산액

정보통신산업의 '98년 생산규모는 총 86조 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2000억원이 증가해 9.1%의 상승폭을 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기제조업이 65조7000억원으로 총생산액의 75.6%를,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업이 16조9000억원으로 19.4%를, 소프트웨어업이 4조3000억원으로 5.0%를 차지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업의 경우 기간통신 및 부가통신서비스의 시장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방송서비스의 급격한 광고매출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정보통신기기제조업의 경우 이동전화 활성화에 따른 통신기기와 부품에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생산규모가 67조 6000억원으로 총 생산규모의 77.8%를 차지했고, 중기업과 소기업은 14조4000억원, 4조8000억원으로 각각 16.6%, 5.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3) 연도별 정보통신산업 생산액 (단위:억원)

구 분	'92	'93	'94	'95	'96	'97	'98
정보통신서비스업	66,163	74,467	84,897	113,095	154,900	171,144	169,200
정보통신기기제조업	143,759	172,701	247,276	386,256	443,231	557,896	657,089
소프트웨어업	3,702	51,311	5,811	16,752	26,696	68,273	43,270
계	213,624	298,479	337,984	516,103	624,827	797,313	869,559

(*주) 정보통신서비스는 매출액 기준

〈표4〉 기업규모별 정보통신산업 생산액 (단위: 억원)

구 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계
정보통신서비스업	158,192	6,404	4,604	169,200
정보통신기기제조업	495,336	122,825	38,928	657,089
소프트웨어업	23,094	15,533	4,643	43,270
계	676,622	144,762	48,175	869,559

정보통신산업 기업규모별 수출액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지난 '98년 수출금액은 전년대비 약 7억9000만 달러가 감소하여 총 305억 20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이 수치는 전년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97년에 5.6% 증가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98년 전반기 급속한 하락세에서 정부 및 산업계가 중심이 된 수출촉진을 통해 하반기 수출규모가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규모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기기제조업이 정보통신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기기제조업의 수출액은 304억7000만 달러로 정보통신산업 전체 수출실적 중 99.8%에 해당된다. 반면 소프트웨어업은 5,282만 달러로 겨우 0.2%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미래의 주요 수출품목이자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므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벤처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서의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보통신산업의 수출현황을 기업규모별로 구분해 보면 대기업이 264억5000만 달러로 총 수출액의 86.7%를, 중기업이 33억6000만 달러로 11.0%를 그리고 소기업이 가장 낮은 수치인 7억400만 달러로 2.3%의 비중을 차지하여 대기업 위주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 기업규모별 수입액

'98년 정보통신사업체의 수입액은 총 182억 4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0.0%가 감소했다.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기제조업이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수입흐름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보통신기기제조업이 총 수입액의 98.8%인 180억 2000만 달러를, 소프트웨어가 1.9%에 불과한 2억 1000만 달러를 수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국내 산업의 극심한 내수침체와 더불어 수출과 수입이 현저히 줄어든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야별로 세분화하면 부품에서 가장 많은 149억 7000만 달러를 수입하여 8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정보통신기기를 구성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및 핵심부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표5〉 연도별 정보통신산업 수출액 (단위: 천달러)

구 분	'92	'93	'94	'95	'96	'97	'98
정보통신기기제조업	12,255,794	14,362,514	20,210,115	31,721,153	29,563,762	31,198,483	30,471,949
소프트웨어업	20,778	20,287	16,391	16,717	21,500	51,497	52,810
계	12,276,572	14,382,801	20,226,506	31,737,870	29,585,262	31,249,980	30,524,759

〈표6〉 기업규모별 정보통신산업 수출액 (단위: 천달러)

구 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계
정보통신기기제조업	26,422,904	3,348,780	700,265	30,471,949
소프트웨어업	33,069	15,473	4,268	52,810
계	26,455,973	3,364,253	704,533	30,524,759

통신기기는 14억3000만 달러로 7.9%를, 정보기기는 14억7000만 달러로 8.2%, 방송기기는 1억4000만 달러로 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현황은 기업규모별로 고른 수입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기업이 총 수입액 중 40.4%인 73억7000만 달러를, 중기업이 24.0%인 43억7000만 달러를, 소기업이 35.6%인 64억8000만 달러의 상품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통신기기의 경우 전송기기와 무선통신기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 주력 품목에서의 핵심부분품 및 부품의 국산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기의 경우 국산 주전산기인 TICOM이 개발되었으나 대형 컴퓨터 시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도 중소기업 위주로 수입하여 조립생산 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7〉 기업규모별 수입액 (단위:천달러)

구 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계
정보통신기계제조업	7,295,741	4,297,160	6,430,266	18,023,167
소프트웨어업	83,888	78,449	56,134	218,471
계	7,379,629	4,375,609	6,486,400	18,241,638

국내 정보통신산업 시장구조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시장구조를 살펴보면 정보통신사업체의 2.0% 정도인 소수 대기업이 수출액은 전체의 86.7%, 수입액은 40.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사업체의 98% 규모를 이루고 있는 대다수 소기업은 수출의 경우 13.3%, 수입은 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의 정보통신산업 시장구조는 대기업 위주로 성장과 하락이 주도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현황 및 독자기술 확보에서 많은 애로를 겪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의 정보통신산업 기술과 경쟁력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고도의 기술이나 고부가가치품의 경쟁력보다는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형태에 그치고 있어, 미래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조업이 아닌 벤처성격이 강한 소프트웨어나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9〉 정보통신산업 기업규모별 현황

구 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계
사업체 수	178	1,486	9,171	10,835
생산액(억원)	676,622	144,762	48,175	869,559
수출액(천\$)	26,455,973	3,364,253	704,533	30,524,759
수입액(천\$)	7,379,629	4,375,609	6,486,400	18,241,638

맺음말

최근 세계의 정보통신시장은 고도의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에 국내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는 IMF 체제하의 경제 회생과 새로운 개념의 글로벌경제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산업의 공공서비스 및 기간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및 적극적인 벤처기업 육성,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국제 정보통신시장에서 지식 집약화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의 특성화와 국가의 전략적 산업육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8〉 연도별 정보통신산업 수입액 (단위:천달러)

구 분	'92	'93	'94	'95	'96	'97	'98
정보통신기계제조업	9,195,981	9,305,919	12,016,585	16,344,105	19,243,747	21,477,191	18,023,167
소프트웨어업	38,554	70,925	39,683	323,235	349,909	408,496	218,771
계	9,234,535	9,376,844	12,056,268	16,667,340	19,593,656	21,885,687	18,241,938